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I N T E R N A T I O N A L

13F Dowon Bldg., Dohwa 2 dong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121-728
Tel: (82-2) 3275-4200 Fax: (82-2) 3275-4220 E-mail: mission@tongil.or.kr

공문번호: 세가선 2010-18

수 신: 대륙회장, 국가메시아, 국가회장

발 신: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세계선교본부

발 신 일: 천기1년 천력 4월 20일(2010년 6월 2일)

제 목: 전 세계 교회 및 공적 집회에서의 설교(강연)권한에 관한 참부모님 특별
지시 건

1. 섭리 일선에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직자와 모든 식구님들에게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 지난 2010년 5월 30일(일) 남미대륙 브라질 협회본부교회에서 참부모님의 유훈 없이 현진님의 일요 예배에 설교를 위해서 설교 중인 대륙회장과 협회장을 단상에서 끌어내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과 이에 관한 2010년 5월 31일(월) 참부모님의 특별 지시사항을 공지하니 각급 공직자는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당초 이번 현진님의 브라질 방문과 일요 예배에서의 집회는 마치 중심식구들이 현진님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고자 요청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브라질 협회 이사회를 장악(5명의 이사회 멤버 중 3명의 이사는 UCI의 주관을 받는 미국사람)하고 있는 UCI측에서 마련한 것이며, 참부모님의 지시를 받아 남미 각 국가를 순회하며 통일승화축제를 거행하고 있는 대륙회장과는 전혀 상의도 없이 자기들끼리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륙회장은 즉시 세계선교본부를 통해 참부모님의 지시를 받고, 참부모님의 허락 없이는 공식적인 식구집회에서 설교를 할 수 없다는 점을 5월 28일 브라질 협회에 공문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륙회장과 협회장의 지도를 받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진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대륙회장 및 협회장과 어떠한 사전 정보공유나 협의도 부정하고 행사를 계속 준비했으며, 오직 자기들의 결정사항만을 관철하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참부모님의 지시와 세계선교본부의 공문 내용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에 현진님을 모시고 협회본부로 갈 것이니 무조건 단상을 내 놓으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대륙회장과 브라질 교회 지도자들은 일요일 예배시간 직전까지 기다리며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I N T E R N A T I O N A L

13F Dowon Bldg., Dohwa 2 dong Mapo-gu, Seoul, Republic of Korea 121-728
Tel: (82-2) 3275-4200 Fax: (82-2) 3275-4220 E-mail: mission@tongil.or.kr

대화로 사태를 풀어 보려 했지만 그 어떤 협상 대상자도 나타나지 않아 아무런 협의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륙회장과 협회장은 본래 예정했던 대로 참부모님의 포르투갈어 자서전 출판을 기념하여 참부모님께서 승화축제에서 주신 강연문 중 마지막 부분인 “최후의 유언” 부분을 본문으로 8가지 교재교본 및 자서전의 의미와 교재교본의 주요 핵심내용에 대하여 설교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진님 쪽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을 동원하여 예배 중인 본부교회에 현진님과 함께 우르르 몰려 들어와 설교중인 대륙회장과 협회장을 완력으로 끌어낸 후 단상과 협회본부를 점령하고 자기들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큰 부상자는 없었으나 이 와중에서 대륙회장은 구두가 벗겨진 채로 단상에서 끌려나갔고 골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던 브라질 전국의 많은 식구들은 참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것은 엄청난 비극적 상황이었습니다.

4. 이에 참부모님께서서는 이런 폭력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현진님은 참부모님의 재가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공식적인 집회나 교회에서 강연이나 설교를 하면 안된다는 강력한 특별지시를 재차 하셨습니다. 따라서 각 대륙과 선교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절대로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자들과 식구들을 철저히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계 회 장 문 형 진

